

튼튼한 뿌리 바탕으로 결실 거두는 중국 관련서 시장

여행기 · 중국진출지침서 · 어학교재 등 중국 관련서 붐



요즘 '중국열풍' '중국특수'가 유행어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과 월드컵 본선진출, 한류열풍 등에 따라 이제 중국은 현대판 엘도라도가 된 느낌이다. 각종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서점에서 독자를 맞는 중국관련 책들은 오히려 덩뎡하다. 중국관련 서적 출판은 바탕으로 튼튼하고 꾸준해 '열풍' '특수' 운운하는 것은 새삼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국관련 도서는 양과 질을 겸비한 문학·역사·철학 분야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가 영역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걸모습에서 사람들, 중국의 실체로 옮겨가고 있는 독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중국의 껍질부터 속살까지 훑고 있다. 또한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중국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바탕으로 중국어학습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어학습 열풍으로 중국어 어학시장 급성장해

중국의 외피는 《중국(자신만만 세계여행3)》(편집부, 삼성출판사)이나 《알짜배기 세계여행 중국》(둘그리부부, 성하) 등 가이드북이 충실하게 설명한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한비아의 중국견문록》(한비아, 푸른숲), 《중국 당당해서 아름다운 나라》(손현주, 리수) 등은 중국인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준다. 이 책들은 중국에 상당기간 거주한 지인들이 만나고 부대끼 사람들을 소개해 중국을 좀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한다. 또 중국인의 육성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은

《상하이에서 부치는 편지》(부뢰, 유명하, 민음사)나 《중국을 이끌어 온 객가》(김삼홍 편, 홍익재), 《중국 중국인》(임어당, 신혜진, 장락) 등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중국의 걸모습, 사람들을 거쳐 실체를 탐구하려는 독자들은 전문적인 연구성과 즉, 중국사회 전반을 세분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책들을 필요로 한다. 《현대중국의 가족제도》(드보라 데이비스 외 엮음, 김혜진, 동방미디어),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백승욱, 문학과지성사), 《파룬궁 중국의 충격》(대니 셰처, 김은정, 영림카디널) 등이 그런 요구가 반영된 책들이다. 《중국의 명소와 명문대학》(차중환 외, 나산출판사), 《한비아 인간경영》(민경서 편역, 일송미디어), 《중국에서 벤처하기》(김원장, 시대의 창) 등은 교육열 높고 모험심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뜻 뽑아들 만한 책인데, 중국진출이나 경영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중국열풍은 중국어 학습열기에서 쉽게 감지된다. 중국어 학습열기는 학원, 서점, TV 프로그램, 신문의 외국어학습 코너 등 생활 속에서 수시로 목격된다. 학습교재는 "눈부신 발전"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양과 질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양한 책들 가운데 《중국어 첫걸음1》(장영지 외, 시사에듀케이션)과 《가장 쉬운 중국어 첫걸음》(서유원, 동양문고)이 대형서점의 외국어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날로 뜨거워지는 학습열기에 힘입어 시사에듀케이션, 다락원 등 중국어교재를 자체 개발하거나 새로 출간하는 출판사도 늘고 있다.

중국관련 사업을 하거나 중국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 "비판

적 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순간의 인상으로 침소봉대한 책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북이나 기행서 등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정보량과 정확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관련 서적 출판은 독자의 관심사를 잘 따르고 있지만, 요구사항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적이고 세세한 전문가의 식견 필요해

씨앤비즈 김민수 팀장은 "한 성(省)의 제도를 중국 전체의 것인 양 소개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접할 수 있는 중국관련 연구보고서는 방대한 통계치만 나열하고 있다.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세세한 전문가의 식견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중국 법령집도 필수다"고 충고한다. 문호호 교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는 "개인 논문은 보편성이 적고 시장성도 떨어져 출판이 어렵다. 중국 경제·정치·외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획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서적이 많이 출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어릴 적 미술시간에 하던 '스크래치'와 같다. 어디를 어떻게 긁느냐에 따라 색깔도 그림도 모두 다른 스크래치처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자극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보여주고 반응하는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을 알려고 애쓰는 만큼 다종다양한 책으로 우리를 중국에 알리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정신 기자